

평동산단 협력업체 대표들 만나 “중소기업 살리기가 일자리 해법”

안철수 광주유세 동행 취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등록을 하자마자 ‘현장정치’에 가속페달을 밟으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안 후보는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에 이어 광주 양동시장 등 민생현장을 찾은 모습을 보이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대통령 이미지 홍보에 나섰다.

안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인 국민캠프 등과 함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펼칠 유세일정 등을 논의한 뒤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

그는 광주 첫 일정으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S중소기업체를 방문, 자동차부품생산 협력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대책 ▲평동산단 외국인 고용문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국가 미래가 있다. 대기업에선 일자리가 늘어나

“대기업 위주 국책연구소 중소기업 R&D 센터로 전환”
양동시장 상인·시민들 몰려 “파이팅” 연호 인기 반영

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일자리 양산대책은 중소기업 살리기 뿐”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발전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중견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R&D 전용센터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임기 내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대기업의 80% 정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S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한 뒤 다음 일정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대책 ▲평동산단 외국인 고용문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동시장에서는 국민의당 경선 이후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안

후보의 인기를 반영하듯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안 후보를 만난 상인과 시민들도 반색하면서 “안철수 파이팅”을 연호했다. 안 후보는 시장 내 어물전·이불집 등을 둘러보면서 상인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안 후보는 양동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이 “다음 정부에선 경제 좀 살려 달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빈부격차를 비롯한 지역·교육·대기업 및 중소기업·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격차 등 수많은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양동시장에서 40여분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이동해,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7일 대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유세에서 연설을 마치고 환호하는 시민들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찾은 문재인 “집권 즉시 10조원 일자리 추정 편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아 일자리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 업체인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라며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정 예산을 편

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때 17조2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9조7000억원의 추경이 각각 편성됐다”며 “일자리 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호흡을 맞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주 68시간 노동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안 되게 보장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후보는 “광주는 전기차·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대구는 자율주행차의 생산 중심지로 양 날개로 발전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시장을 찾아 직접 쓴 응원 문구를 쓴 상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野 호남에 화력 집중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텃밭인 호남의 표심 쟁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 측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당 중진의원 등 선대위 간판급 인사들을 광주에 대거 투입하는 등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드러났듯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결국 전국적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양 측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지역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선대위 출정식에는 최근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총괄본부장, 강기정 총괄수석본부장 등 중앙 선대위위원 관계자들과 이형석·양항자 최고위원 등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문 후보에게 ‘대

박영선 “통합정부 새로운 대통령은 문재인” 박지원 “安후보가 돼야 지역 차별 사라져”

한국 국가 개혁을 위해 통합정부를 이끌 대통령으로 거듭나 주실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그 대답에서 통합정부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발견했다”면서 뒤늦게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방점을 찍고 우리에게 맑은 영혼을 심어준 도시”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뿌리의 힘을 이번 대선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모아주세요” 한다”고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문 후보의 광주 방문 하루를 앞두고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날 오후 광주시 선대위와 시민캠프 발대식에 참여한 뒤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에서 퇴근인사에 나섰다. 문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집중유세를 펼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에 화력을 집중했다.

당 대표인 박지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의 ‘주포’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호남을 찾아 기선 제압에 주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공동출정식을 가졌고, 박 위원장은 지원 유세를 통해 “안철수가 이긴다”며 호남 표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주를 기점으로 뒤집어지고 안 후보가 1위에 오를 것이고, 안 후보가 돼야 인사 차별, 예산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광주·전주 언론인들은 문(문재인) 4대 안(안철수) 6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 YEONGNAM MOTOROCK FESTIVAL

2017 영남 모터락페스티벌

2017.4.29 - 5.6

영남 국제자동차경주장 상설블록 특설무대

4. 29(토) 16:00~23:00

김경호, 노브레인, 자이언티, 전인길, 브로콜리너마저, 데이브레이크, 락스

4. 30(일) 16:00~23:00

윤도현밴드, 국카스텐, 10cm, 김창환밴드, 이승엽, 페퍼민트, 안녕바다

5월 초대형 모터스포츠 축제가 펼쳐진다!! 락과 함께하는 '전남모터페스티벌'

그린드 이벤트, 슈퍼바이크 트럭데이, 슈퍼모터쇼, 바이크 점프쇼,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5.3(수), EBS 번개맨 공개녹화 5.5(금)

행사안내 061-288-4248, 061-288-4207 www.motorfesta.kr ※ 행사기간 내 캠핑장 운영

주최·주관 전남개발공사, 에매처, 인터파크